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5. 6 (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 공감 2.0

Strategy Idea

정부부채 늘면 외국인인 채권을 팔까?

오늘의 차트

미국 무역합의 파기 위험: 명분은 있는가?

칼럼의 재해석

코로나 시대의 핀테크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02. 6454-4894
 yeosam.yoon@meritz.co.kr

정부부채 늘면 외국인이 채권을 팔까?

- ✓ 전염병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국 정책대응 강화 과정에서 정부부채 급증 우려
- ✓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확정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고채 및 정부관련 부채 증가 우려. 일각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 자금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문의
- ✓ 한국 순채권국, 경상흑자, 상대적 부채증가 속도 낮다는 점에서 우려할 문제 아니라는 판단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에도 외국인 채권매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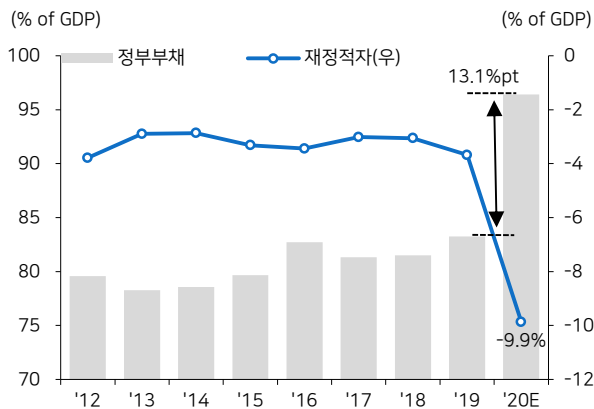
2~3월 COVID-19의 전세계 유행으로 흔들리던 금융시장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4월에는 상당수준의 안정흐름을 찾고 있다. 전염병 확산 전 대비 주요국 증시는 낙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고 특히 국내 증시는 60% 이상을 회복했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은 후행적으로 침체에 준하는 숫자가 발표되고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가격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재정정책 재원조달 위한 정부부채 급증에 재정건전 악영향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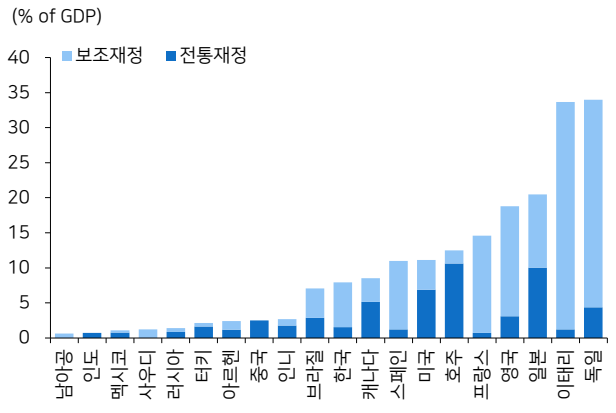
그 중 실물경제에 직접 효과가 큰 재정정책은 재원조달 과정에서 정부부채를 큰 폭으로 늘려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정부부채는 GDP의 13%p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1 IMF 전세계 정부부채 전년보다 GDP의 13%p 증가



자료: IMF Fiscal Monitor(20.4),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통적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비전통 수단까지 동원



자료: IMF Fiscal Monitor(20.4),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가 전세계 9.9%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출한 규모인 8%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순히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신용보강이나 간접적 금융지원 등까지 합친 정책은 역사적인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다. 정책경로가 금융시장에 중점적인 통화정책 대비 현재 국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부각되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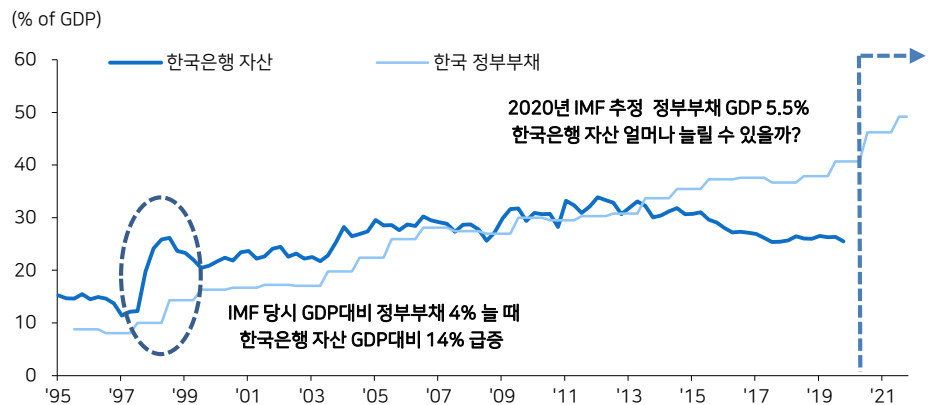
기축통화국 아닌 한국의 대규모 정부부채 증가에 우려 제기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해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을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의 구축효과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같은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한은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도 GDP의 5.5% 규모의 정부부채가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림 3>.

채권 공급부담,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외국인 현물채권잔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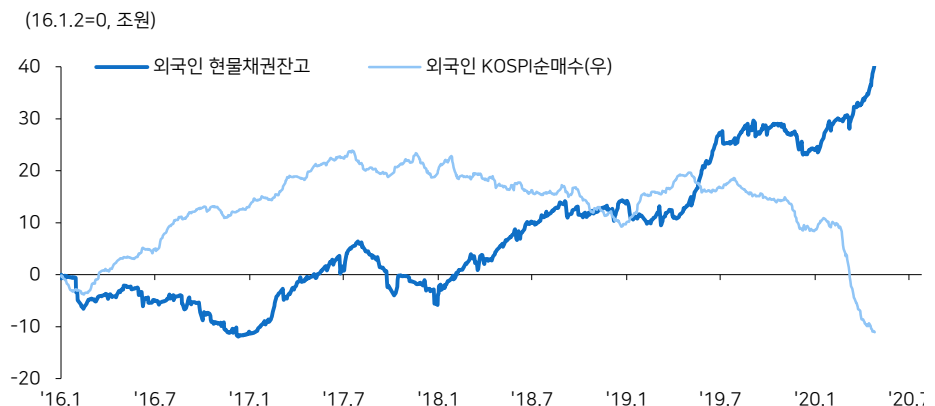
걱정과 달리 올해 국내 현물기준 채권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1월 저점대비 15조원이나 증가했다<그림 4>. 전염병 공포 확산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20조원 순매도한 것과 정반대로 채권공급 부담과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 한국 채권시장은 진정한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인했다.

그림3 2020년 한국 정부부채 GDP 5.5% 증가 예상,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부각



자료: 한국은행, IMF Fiscal Monitor(20.4),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외국인 3~4월 주식 20조원 매도할 때 채권은 10조원 넘는 매수 기록



자료: KRX,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공급물량 부담되나 한국 채권시장 안전자산 지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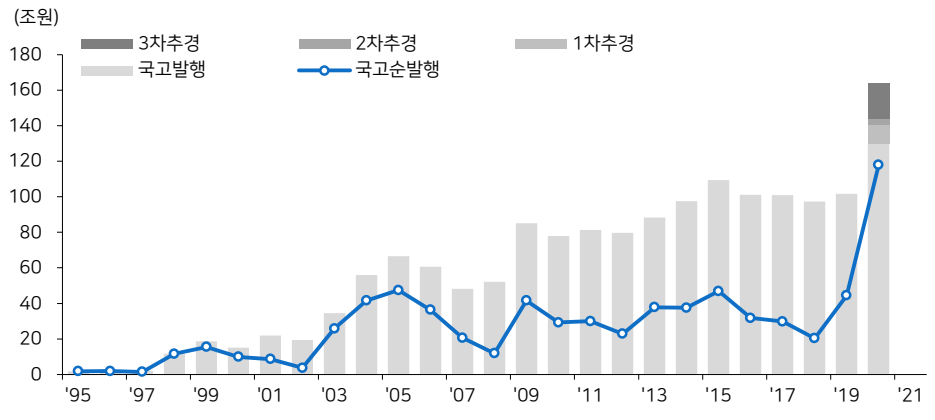
표면적으로 2020년 급증하는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기존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은 COVID-19 확산 전부터 애초 적극적 정부지출 계획으로 지난해 100조원에서 130조원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3차재에 걸쳐 50조원이 넘는 추경이 계획되었고 적자국채 발행은 30조원 대로 추가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그림 5>. 국고채 기준 액면 발행만 60% 가까운 증가이며 만기감안 순발행은 2배 이상 급증이다. 여기에 기업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정책으로도 추가 채권공급량은 60조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그림 6>.

정책영향에 국고, 특수은행채 중심
전체발행 40%넘게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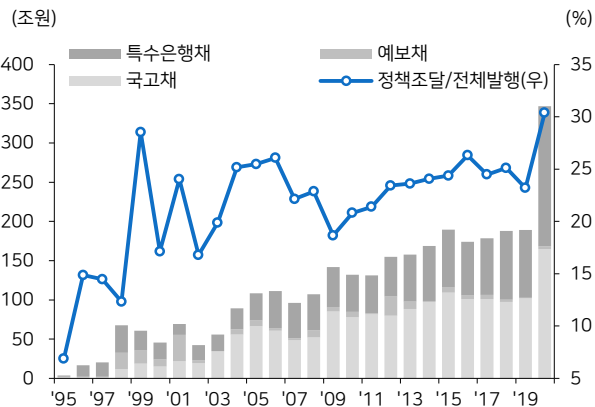
올해 당사 추정으로 전체 채권시장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국고채와 특수 은행채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발행이 4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발행증가라는 점에서 공급우려가 높다.

그림5 올해 3차재 추경관련 국고채만 34조원 가까이 발행 늘어날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안정 관련 특수은행 채권발행도 급증 예상



자료: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금융위기 이후 채권발행 전년대비 가장 큰 폭 증가



자료: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때문에 현재 국고3년 금리는 1.00% 초반인 반면 국고10년 금리는 1.5%대로 장기물 중심 공급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 중이다. 작년 무역분쟁 당시 통화완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장은 3년과 10년 금리차가 10bp까지 줄었던 것에 비해 채권수요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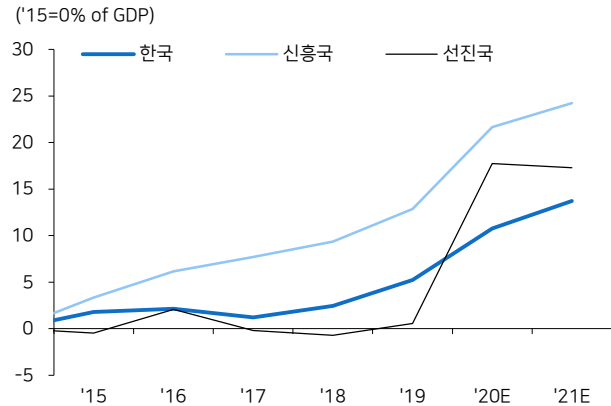
외국인 현물잔고 증가유인: 1)채권 건전성, 2)확보된 높은 수익성

이렇듯 올해 채권시장은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공급물량 부담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한 편이나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잔고를 늘리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유입은 크게 1)한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건전성과 2)현재 확보된 높은 수익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 GDP대비 정부부채, 순채권국 지위 등은 채무 안정성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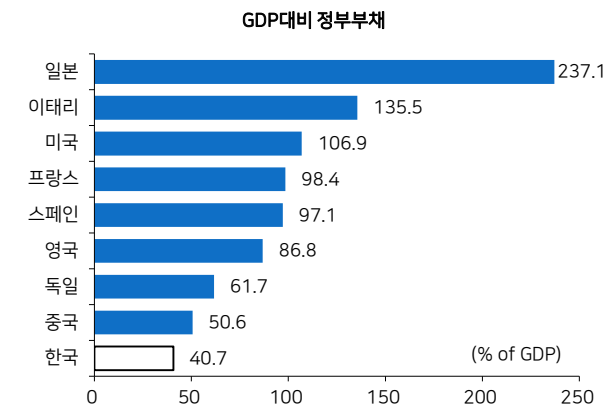
한국의 건전성은 선진국과 신흥국 공히 급증하는 정부부채 속도보다 한국이 낮은 데다 절대 규모로도 정부부채가 2019년 기준 GDP의 41%, 올해 46% 정도이며 정부보증부채 합쳐도 70%대 밖에 안 된다<그림 8,9>. 그리고 다소 줄어들더라도 GDP의 3% 내외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4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순채권국이라는 지위는 채무의 안정성을 담보한다<그림 10, 11>.

그림8 선진국과 신흥국 부채증가 속도대비 한국 양호한 편



자료: IM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한국 주요국 대비 정부부채 규모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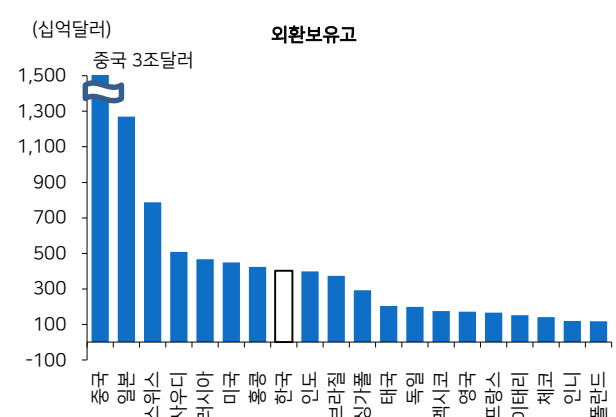
자료: IMF(2019년 기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한국 선진권역 중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한국 외환보유고 전세계 8위이다가 순채권국 지위



자료: IM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외국인 채권투자 이탈이 아닌 유입세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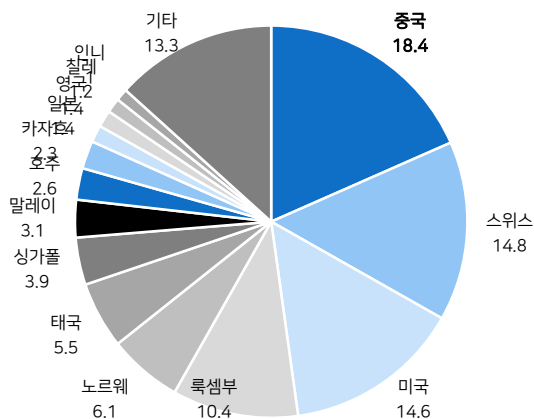
상기했듯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건전성은 규모와 증가속도 그리고 현금흐름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서 안정도가 높다. 때문에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북미권과 유럽 등의 신용등급을 하향해온 반면 한국은 AA등급까지 상향되어왔다.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한국채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추가로 찾아 보았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2016년까지는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기관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었다. 마지막 확인된 2016년 당시 데이터를 추정해보면 중국 중심 아시아 비중이 높다.

한국채권 보유 비중 높은 아시아 국가, 국부펀드 같은 중장기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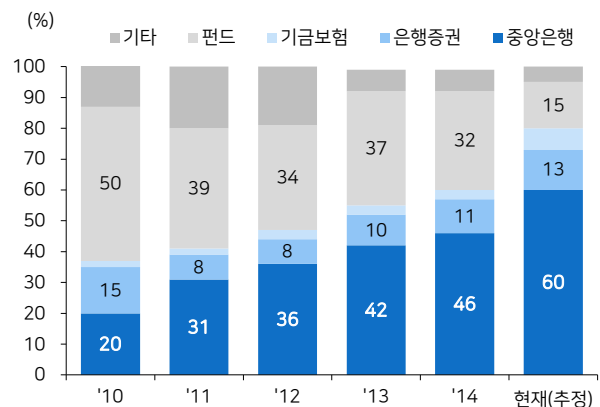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와 같이 단기보다 중장기 투자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투자자를 의미한다. 올해 3월에만 외국인이 4조원 가까이 매수할 때 아시아 자금이 4.2조원 유입되었다. 미주와 유럽 쪽에서 자금이 이탈했는데 일부 글로벌 펀드 같은 곳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2 2016년 3월 기준 한국채권 보유 국가별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2014년 기준 기관별 한국채권 보유 비중(현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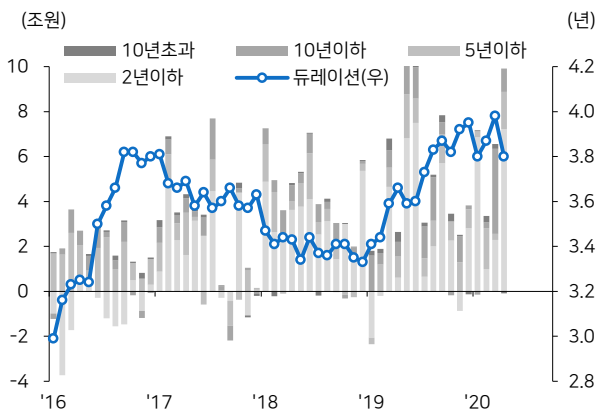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전체 주식과 채권시장 외국인 보유비중



자료: 연합인포맥스, KR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외국인 만기별 채권순매수와 보유 듀레이션



자료: 연합인포맥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데이터가 2014년 말까지 밖에 없지만 이미 당시에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 중앙은행같은 정책기관 자금비중이 46%였다<그림 13>. 당시에는 템플턴이라고 하는 글로벌 펀드 비중 커 펀드가 30%를 넘겼지만 현재 템플턴 자금은 대부분 한국을 이탈해 현재 정책자금은 6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현물투자자는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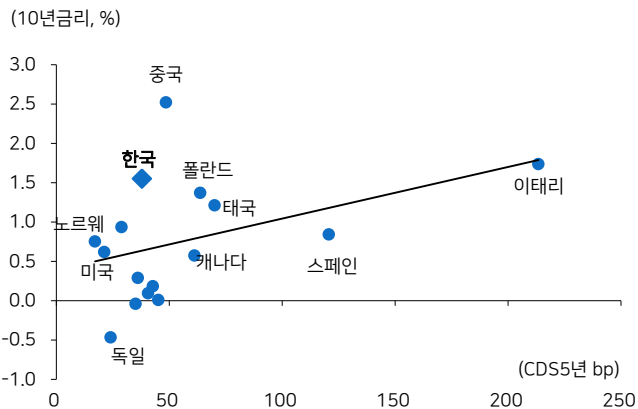
낮은 투자비중과 늘어난 투자만기 고려 외국인 채권시장영향 제한적

여기에 전체 국내 채권잔액 2천조에서 외국인 비중은 140조원 정도로 6.4%에 불과하다<그림 14>. 외국인 주식투자자 37%에 비해 낮은 편인데다 외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통안으로 비중을 봐도 16%대 수준으로 민감도가 낮다. 그리고 2019년 이후 투자하는 만기도 늘어 평균 듀레이션이 4년에 가깝다<그림 15>.

한국, 동일 신용등급~A급 국제 시장 절대금리 높은 수준

국내 외국인 투자가 단순히 안정성만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한국 채권시장의 높은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국은 동일 신용등급 혹은 A급 국제시장에서 절대금리가 높은 축에 들어간다.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혹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CDS 기준으로도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가 없다<그림 16>.

그림16 한국 위험대비 금리 높아 동일 신용등급 최고금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한국 원화가치 저평가 구간 외국인 투자부담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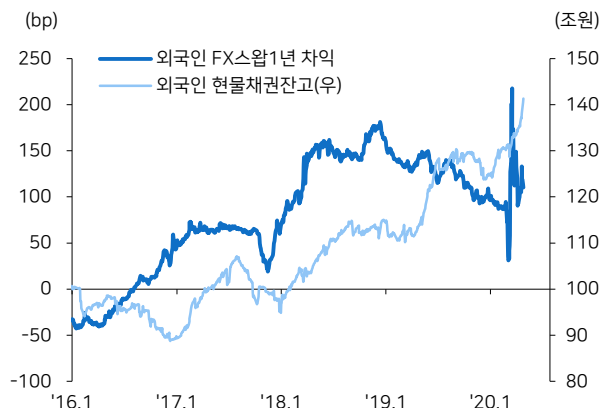
자료: 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미국금리 급락으로 한미금리차 큰 폭으로 확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달러유동성 이슈로 외환 쪽 여건도 외국인 유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부채 부담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탈리아와 한국금리가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봐도 한국 국채의 안정성대비 금리매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1200원대는 원화가치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된다<그림 17>. 아직 금융시장 불안감이 남아있으나 현재 수준에서 원화를 투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유리한 구간인 것이다.

미국 단기금리 급락에도 FX스왑 시 100bp 이상 환차익 기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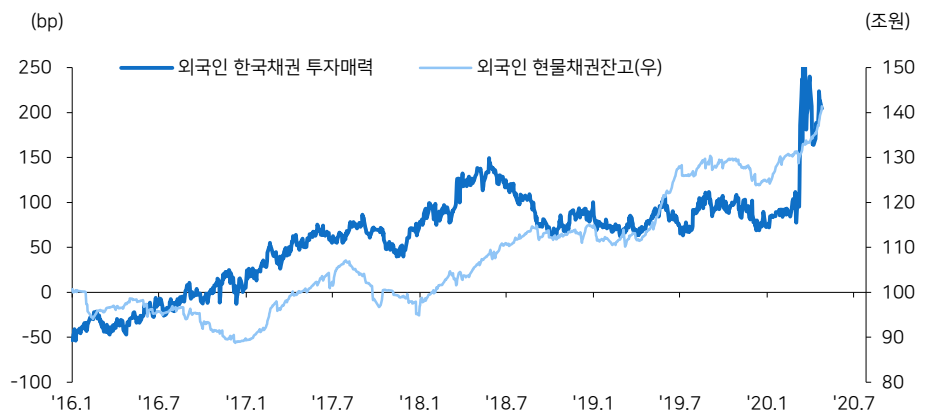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과 미국기준 대외금리차도 2014년 유가하락 이후 최대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리의 기준인 미국채대비 한국채 금리매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그리고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미국 단기금리가 급락했음에도 원화 FX스왑레이트 1년은 100bp 이상 환차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9>.

한국 5년만기 CDS 38bp수준으로 낮은 부도위험 지지

달러를 들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는 미국채 투자보다도 한국채에 투자할 때 절대금리만 90bp 수준에 FX스왑으로 110bp 추가 200bp 정도를 outperform 할 수 있다<그림 20>. 5년만기 CDS는 한미 차이가 16bp에 불과한데다 한국 CDS가 38bp 수준으로 50bp 이내에서는 부도위험은 무차별하다.

때문에 일부 주식 중심 투자자들이 평소 채권시장 수급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할 수 있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 우려'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만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될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자산은 '미국채'나 '달러' 혹은 '금'장도 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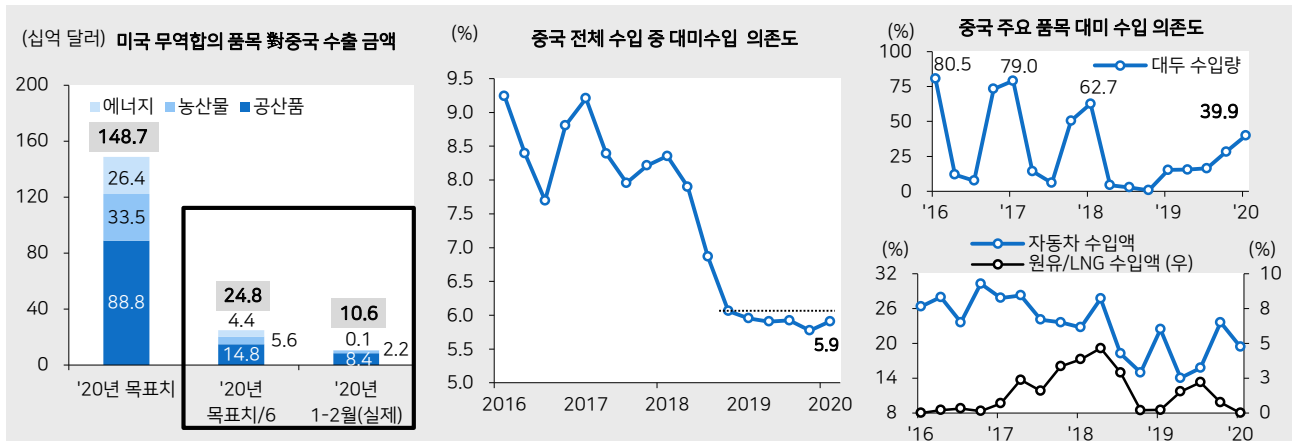
그림20 낮은 위험, 높은 금리, 환차익 매력까지 외국인 채권 자금이탈은 걱정 안 해도 될 듯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황수욱 연구원

미국의 무역합의 파기 위험: 명분은 있는가?



자료: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PRC, Phase One, 무역협회, CEIC,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대통령, 1차 무역합의 파기 위험, 무역분쟁 재발 위험 부상

5월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무역분쟁 재발 위험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충격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월 15일 타결된 1단계 무역합의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불만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 1분기 대미 수입 비중 5.9%에 불과, 수입 증대노력 약함

명분은 있다.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HS 코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이 추가로 수입해야 할 미국산 재화의 규모를 추산해보면, 1,487억 달러로 계산(2019년 대비 +767억)된다. 이를 매월 같은 속도로 이행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2월까지 이들 품목을 248억 달러 수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6억 달러로 전술한 금액의 43%에 불과하다. 1분기 중국 수입의 대미수입 의존도 역시 5.9%로 4Q19의 5.8%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에서도 합의 이행 미비점 드러남

중국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은 미국이 공을 들여 온 농산물, 에너지, 자동차 등 품목별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1분기 대두의 대미수입 의존도는 40%로 무역분쟁 이전의 3개년간 1분기 평균(74%)을 하회하며, 자동차(1분기 19.4% vs 직전 3개년 평균 27%)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 분야의 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19년(36억 달러) 대비 230억 달러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1분기 중국의 대미 천연가스/원유 수입액은 고작 215달러에 그쳤다.

미-중 무역분쟁 이슈 재점화 여지,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협정문에 명시한 대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발생으로 합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조율”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이행 부진을 의도적이라 해석하면서 “일방이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 합의종료를 일방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데에 있다. 당장은 국제공조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으나,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명분이 실리를 압도할 위험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칼럼의 재해석 오형근 연구원

코로나 시대의 핀테크 (CB Insight)

COVID-19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교적 기반이 탄탄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 외부 자금이 없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7일에 불과하다.

경기가 둔화될수록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창구의 수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정부정책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대출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에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대출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의 정부는 핀테크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COVID-19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기존의 금융시장 침투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COVID-19가 불러온 핀테크 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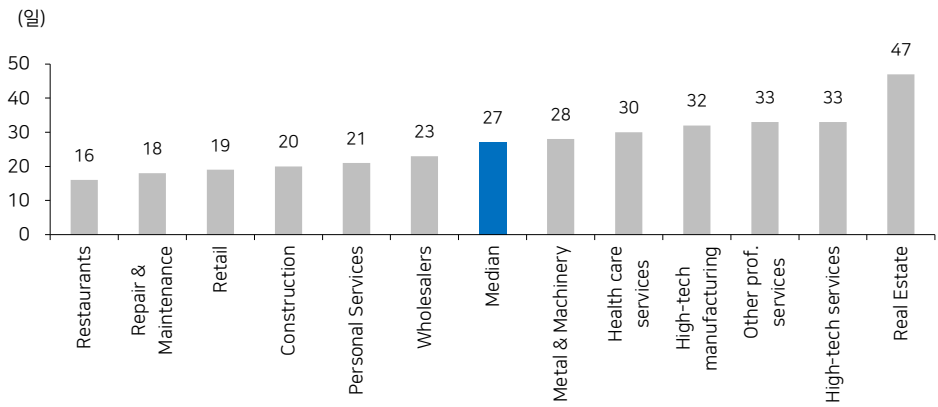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COVID-19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교적 기반이 탄탄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

중소기업들이 보유 현금만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27일에 불과

외부 자금이 없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7일(중간 값)에 불과하다. 지난 경기침체 사이클 동안 전체 실업자의 약 60%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들은 더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한다.

그래프 각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보유 현금만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일수



자료: JP Morgan Cha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정책대출 직접 공급자

정부정책대출에 일시적으로 물리는 많은 대출 수요

경기가 둔화될수록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창구의 수는 한정적이다. 특히 정부정책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대출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에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대출수요가 일시적으로 물리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Ondeck, Paypal, Intuit 등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 직접 정부정책대출 공급

이와 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Ondeck, Paypal, Intuit 등과 같은 다수의 핀테크 기업들을 이번 CARES Act loan program의 공급자로 참여시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핀테크 기업들에겐 경기침체에 대출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번 정책자금공급에 참가하는 대다수의 핀테크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대출 데이터가 전무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은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주는 가운데 자신들의 알고리즘 기반의 대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정부정책대출 간접 공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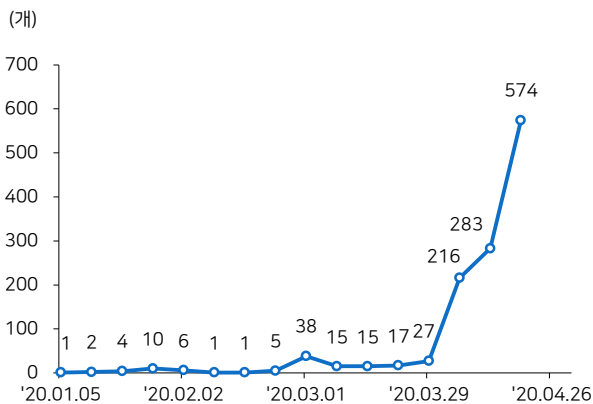
Lendio, Biz2Credit, Fundera 등 핀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해 SBA펀드와 소상공인 매칭

대출중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Lendio, Biz2Credit, Fundera 등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정부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펀드를 소상공인들에게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출 리스크가 없는 대출중개 핀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MS를 높일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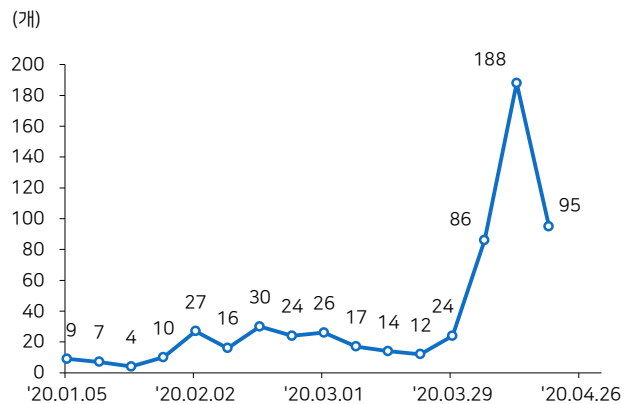
중소기업대출의 특성상 관련 정책이 수시로 수정되기 때문에 많은 대출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요즘 같이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그들에게 최적의 대출을 찾아주는 일은 대출중개가 향후 일어날 중소기업대출의 과정에서도 하나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게다가 대출중개 핀테크 기업들은 대출의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핀테크 업체들에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림2 Lendio 주간 트위터 언급 횟수 추이



자료: Twit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Fundera 주간 트위터 언급 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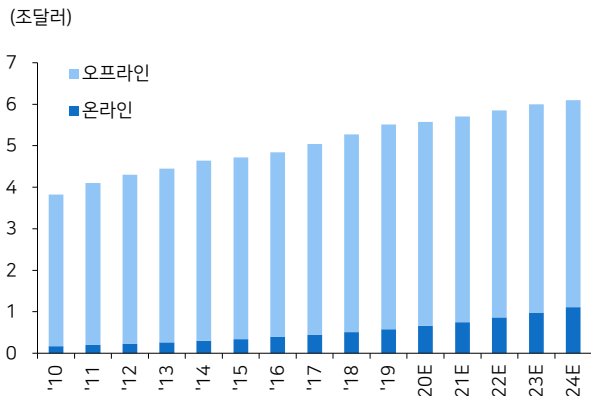
자료: Twit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온라인결제 증가 추세 가속화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결제 증가 추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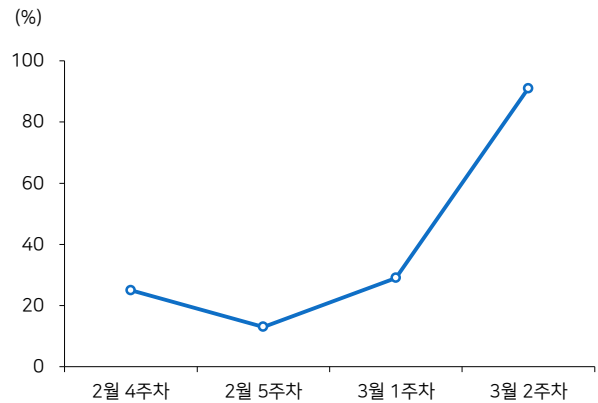
COVID-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장들의 매출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미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이를 서둘러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온라인 결제의 증가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결제 핀테크 기업인 Stripe와 Square는 늘어나는 온라인 결제 수요에 발맞춰 COVID-19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림4 미국 소매판매 매출액 추이



자료: Business Insider,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 전년 동기대비 필수소비재 온라인 판매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VID-19로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의 필요성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의 필요성

이번 팬데믹 기간동안 각종 분야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정부가 핀테크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중소기업대출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을 위한 정부의 웹사이트(E-Trans)가 늘어난 이용자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되는 등 많은 사업자들이 코로나 긴급대출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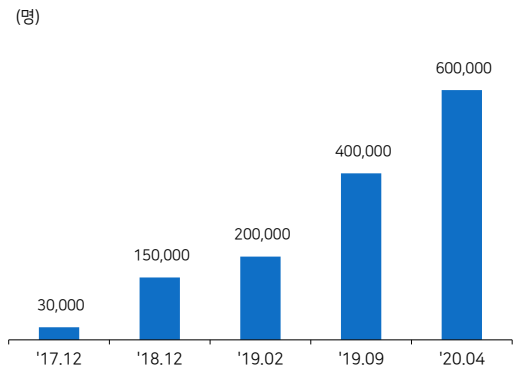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대출
을 받기 위해 몰림

국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COVID-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의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새벽부터 수 많은 사람들이 소진공 센터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4.20일 기준 약 52,000건이 접수되었다.

현금 보유액이 적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의 타이밍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속도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지체된다면 이는 치명적이다. 대출의 진행이 지체되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필요 서류미비를 꼽을 수 있다. 긴급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만큼 한번에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해 간다면 전체 대출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6 캐시노트 고객사 증가 추이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캐시노트 코로나 자금 진단 서비스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수시로 바뀌는 중소기업대출 정책을 개인이 계속해서 완벽히 파악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캐시노트’의 코로나 자금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 소요시간 단축 가능

한국신용데이터는 카카오톡만으로 카드매출 및 배달앱 매출, 현금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내역 등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캐시노트는 코로나 자금 진단 서비스를 공개하며 현지점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초저금리(1.5%) 자금대출, 카드청구대금·대출이자·세금 납부 연기, 보험료 및 전기요금 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 세금 환급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중소기업대출 지원 및 신청서류 등이 캐시노트를 통해 한번에 처리 가능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노트’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20.04월 기준 캐시노트가 약 60만 고객사를 통해 관리하는 매출액은 약 160조 원에 육박한다. 향후 새롭게 추가되는 대출중개 및 정부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효과를 감안시, 현재 월평균 3.5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신규 고객 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기업간의 옥석 가리기

금융위원회,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공급 발표

지난 4.10일 금융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향후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총 855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 계획 중이며, 이중 48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창업 초기의 핀테크 기업에 나머지 375억원은 사업확장 및 해외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국내 대출중개 핀테크 기업에게는 지금이 대출중개사업 확장 최적기

역설적으로 이번 COVID-19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에게 기존의 금융시장 침투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는 단연 대출중개다. 직접적인 리스크는 전혀 지지 않는 가운데,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COVID-19로 인해 핀테크 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

COVID-19가 불러온 전례 없는 시기를 지나면서 핀테크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업내의 확고한 축으로 빠르게 자리잡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격차는 향후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What SMB's Cash-Flow Crisis Means For Fintech, CB Insight*